



5면

"원활한 인수인계 최소 1주일 인사팀 필요"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7월 22일 월요일 (음 6월 17일) 제3550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동서축 고속도로망 구축 이뤄지나

尹 전북 민생토론회 통해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신속 추진 지원 약속 따라 호·영남 교류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에 큰 기여 도, 행정절차 이행 만전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을 찾아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 신속 추진을 약속함에 따라 새만금에서 포항에 이르는 동서축 고속도로망 구축에 속도감이 기대된다.

이로써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 비해 열악한 동서축을 확충해 호·영남 간 교류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우회거리를 단축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절감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9일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날(18일)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교통망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 국토교통부에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앞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가 고속도로망은 남북방향 10개 축과 동서 방향 10개 축으로 구성돼 있다. 동서 10개 축 가운데 동서 3축은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구간으로, 대구~포항 구간은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새만금~전주 구간은 내년 말 개통 예정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전주~대구 고속도로는 새만금~포항의 동서 3축 중 미개설된 전주~대구 구간을 건설함으로써 동서축을 확충해 호·영남 간 교류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현재의 전주~장수~무주 구간(75km)을 전주~무주 직결 노선(42km)으로 연결, 우회 거리(33km)를 단축해 두 지역 간 지역 접근성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고속도로(10X10축)의 동서 3축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민생토론회에서도 정대목 지인이앤씨 소장은 "전북은 수도권 중심의 남



화려한 격파 시범

지난 18일 시작된 제17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의 개회식이 20일 무주태권도원 T1경기장에서 열린 가운데, KTA 국가대표 시범단이 무대 위에 올라 화려한 격파 시범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9면>

북 도로에 비해 전주에서 대구, 경주 등 경상도로 가는 도로는 열악하다."며, "실제로 전주에서 대구까지 가려면 익산-장수 고속도로, 통영-대전 고속도로를 타고 함양까지 내려가서 광주~대구 고속도로를 타고 다시 올라가야 하는데 180km를 돌아 2시간 30분 만에 대구에 도착한다."고 설명, 전주에서 대구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이우재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추진절차는 1단계 국가 상위계획 반영, 2단계 사전 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3단계 설계·시공으로 진행된다."며, "절차에 따라 무주에서 성주 구간은 국가상위계획에 반영돼 있어 하반기에 사타에 착수해 내년 초에 예타 신청을 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이어 "전주-무주 구간은 국가 상위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내년 초부터 국가 상위계획인 국가 간선도로망 종합 계획 수정 작업을 할 예정이므로 지역 균형발전 효과 및 영호남 교류활성화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지자체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과거 검사 시절 함께 전주까지 출장했던 일화를 상기시키며 "전주에서 경남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는 있는데, 전주에서 경북으로 가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에 전주-대구 고속도로의 신속한 건설을 지시하고, 지역에 대한 공정한 접근성을 위해 교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지역 균형 3대 원칙으로 "도로와 철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는 발언과도 흐름을 함께하고 있다.

전주~대구 고속도로 중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 2022년 2월 고시)에 중점사업으로 반영된 성주~대구 구간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으로 예타를 통과해야 하며, 일반사업으로 반영된 무주~성주 구간은 사전 타당성조사 후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미반영된 전주~무주 고속도로는 상위계획인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하고, 이번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2026~2030)에도 신규사업으로 반영돼야 한다.

또한, 무주~성주 고속도로 건설로 교통 취약지역인 무주군, 성주군에 대한 교통서비스가 크게 개선되고, 통영~대전 고속도로와 중부내륙선을 직접 연결해 경부선 보완 기능을 수행하고 새만금에서 포항까지의 동서축을 완성하게 된다.

그동안 전북자치도에서는 동서축의 취약한 교통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지역공약인 전주에서 대구까지 고속도로 건설사업 반영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국가계획 반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관련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및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김광수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전주~대구 고속도로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도전 경성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전북 디지털 교육센터 추진 요청

도, 작년 체결한 디지털 혁신생태계 조성 협약 연속 선상 김관영 도지사 "디지털분야 민관학 상생발전모델 조성"

전북특별자치도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 디지털 전문인재 교육센터 전북 교육장 구축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북자치도는 19일 김관영 도지사가 서울 판교 소재 카카오 디지털 전문인재 양성 시설인 '카카오테크 부트캠프'를 방문해 교육시설을 꼼꼼히 살펴본 뒤 교육생들과 대화를 나눈 뒤 카카오엔터프라이즈측 고위관계자들과도 전북 협력 방안 등에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9면>

또한 이날 100여명 교육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청년들과 함께 '전북 디지털산업 여건 및 육성계획' 등을 설명하고, 전북에 만들어질 다양한 디지털 관련 일자리와 창업 등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

이번 김 지사의 방문은 지난해 11월 20일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15개 기업, 기관, 대학과 맺은 '디지털 혁신생태계 조성 및 전북국제융합금융센터 개발 업무협약(MOU)'의 연속 선상에서 디지털 혁신센터의 선행 모델을 점검하고 전북교육장 구축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카카오의 디지털 전문인재 교육센터(카카오테크 부트캠프)는 소프트웨어(SW) 등 디지털 분야 실무 프로젝트와 해커톤 등 다양한 훈련을 통해 실무에 즉시 투입 가능한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시설로 현재 제주교육

장과 판교교육장 2곳이 운용 중이다.

전북자치도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전북교육장이 본격 가동되면 교육생들에게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및 협력·제휴기업으로 취업을 연계하고, 창업을 희망 청년에게는 전문적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도 연동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산업은 분야의 특성상 전문적 기술력 보유와 기술력을 실현시킬 전문인재 확보에 따라 기업의 역량이 측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IT기업들은 개발 전문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교육센터가 전북에 유치되면 이곳에서 배출되는 전문인재들은 그동안 전문개발인력 확보에 목마른 도내 지역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ICT/SW) 기업들의 감증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관련 기업들 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디지털산업은 전북의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청년들을 위해 반드시 집중 육성해야 할 산업이다"며 "지역 청년들에게 디지털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해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하겠다. 기업들의 역량을 진보시키기 위해서는 민간-기업-대학-지자체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뉴트라코어, 임실 오수 제2농공단지에 공장 설립

전북자치도·임실군과 협약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9일 임실군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소재 연구개발 기업인 (주)뉴트라코어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임실군청에서 심민 임실군수와 최범라 뉴트라코어 대표,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뉴트라코어는 오수 제2농단지 1호

입주기업으로 6,612㎡의 부지에 75억 원을 투자해 2025년 5월까지 공장을 준공하고, 2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천연물 소재 생산 설비를 갖추고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로 완제품을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천연 특산물을 소재로 활용해 제품을 개발·판매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